

새농촌새농협운동 聯合마케팅사업 박차

농협중앙회 포천시지부, 관내 조합 이사·감사 교육

농협중앙회 포천시지부(지부장 황일현)는 11월23일 영종농협 경제사업부 회의실에서 관내 지역농협 조합장과 이사·감사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농협 임원의 역할과 농협연합마케팅사업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고 포천시 농협연합마케팅사업 추진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주)지역농업네트워크의 박영범 대표가 이사·감사의 역할에 대하여, 그리고 농협경기지역본부의 안재경 연합사업단장이 행사 및 임직원 연합마케팅사업의 추진 성공사례를 들어 특강을 실시했다.

올해 처음으로 연합마케팅사업을 시작한 농협중앙회 포천시지부와 관내 지역농협은 가산과 참수에 2개의 공동선별장을 신규로 마련하

고 해솔촌 공동브랜드 박스를 개발하여 고추, 토마토, 오이, 포도, 시금치를 출하했으며 2008년도에는 사과, 애호박, 가지 품목을 확대하여 선별장의 운영을 효율화 하고 농가조직화와 농산물 규모화, 품질화를 통한 고품질 우수농산물 생산으로 관내 농산물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 포천시지부 황일현 지부장은 "연합마케팅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 행정과의 유대강화를 통해 포천농업을 2012년까지 경기북부 근교농업의 메카로 육성하고 포천농산물 공동브랜드 해솔촌을 세계 최고의 명품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농협중앙회 포천시지부는 11월23일 영종농협 경제사업부 회의실에서 관내 지역농협 조합장과 이사·감사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농협 임원의 역할과 농협연합마케팅사업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고 포천시 농협연합마케팅사업 추진 설명회를 가졌다.

대한민국 관혼상제 문화의 중심

이지스상조 경기북부분부 사무실 개소식

(주)렌탈클럽 이지스 상조 경기북부분부(본부장 임상빈)가 11월23일 포천시 군내면 용정리 434-8번지에 사무실을 두고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지스 상조 본사 임직원과 경기북부분부 소속 각 기사 및 직원들과 지인들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했다.

이날 개소식을 가진 이지스상조 경기북부분부 임상빈 본부장은 "어떤 사람이든 집안에 대사가 있거나 마련"이라며 "특히 갑자기 상을 당할 경우에는 경황이 없어 어려움

에 처할 때 옆에서 든든한 도움을 주는 대한민국 관혼상제 문화의 중심인 이지스 상조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지스 상조는 240만원, 360만원, 480만원 등 3가지 상품이 있으며 매월 2만원, 3만원, 4만원을 불입하며 애경사가 있을 경우 그동안 불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추가로 받고 애경사를 진행해 주는 서비스 사업으로 회원으로 가입한 후 전화(1566-1024) 한 통화면 가정의 모든 대사를 차를 수 있다.



(주)렌탈클럽 이지스 상조 경기북부분부가 11월23일 포천시 군내면 용정리 434-8번지에 사무실을 두고 개소식을 가졌다.

기사 자세한 사항은 (주)렌탈클럽 이지스 상조 경기북부분부(031-536-0338)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행복한 보험이야기 15

행복한 보험 리모델링

'인생하세요? 저는 한 남편의 아내이자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산골주부입니다. 벌써 6년 전 이지요. 둘째 아이를 임신해서 넘어서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그 당시에는 임신한지라 치료도 제대로 못 받았지요. 한의원을 다니며 물리치료 받고 겨우 지냈습니다. 다행히도 아이에게는 별 이상이 없이 낫는 것만 같았을 뿐이지요. 아이를 낳고 꼭 쉬어 봐도 너무 통증이 심했어요. 걸음도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 너무 아프니까 누워서만 나타났지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 MRI를 찍어보니 디스크가 너무 많이 튀어 나와 다리신경을 내리 눌러 그렇다고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의사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아이가 어리니 걱정정만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임원수술을 밟아서 수술을 받았지요. 그리고 나서 3년 있다가 재발이 되어서 수술을 다시 받았는데 인공뼈를 박았어요. 그래서 장애인이 되었지요. 한동안

은 너무 너무 속상하고 눈물만 흘렸지요. 그런 와중에 위안이 되는 것이 바로 보험이었어요. 수술비가 장난 아니게 많이 필요했지요. 보험을 몇 개 들어놨었던 것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바람에 마음이 한시름 놓이더라고요. 보험 아니었다면 어디서 또 대참을 내었어야 하겠지요. 보험의 필요성을 얼마나 깨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뒤로 아이들 보험도 미리미리 들어놨답니다. (이글은 인터넷 네이비에 올려져 있는 보험경험담에 대한 내용이다.)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여러 건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도 하다. 주변의 지인들을 통하여, 또는 홈쇼핑 등을 통하여 여러 건에 가입되어 있다 보니 중복된 보장 내용이 많고 정작 필요한 보장은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최근 보험에 대하여 전반적으

로 보장지산에 대한 평가와 노후에 대비한 은퇴설계에 대한 보장 설계가 새로운 붐을 일으키고 있다. 이미 가입되어 있는 보험 상품에 대한 재평가를 고객이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일이다. 그러므로 신규로 가입하기 전에 반드시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보험 상품의 내역을 확인하는 보험 리모델링을 전문가 등을 통해 확인한 후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미 가입한 보험 상품에 대한 보장내용을 분석하여 중복 가입한 내용은 없는지, 특정 위험에 대한 보장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납입하고 있는 보험료는 나의 경제력에서 적절한 선인지, 보장기간이나 가입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내년 국민건강 의료보험료가 6.4% 오른다. 건강보험료율은 오른다는 반년 보장은 줄었다. 문제가 지적되던 입원 식대를 환자가 필요한 보장은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본인부담률은 10%로 조정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현행 국민 건강보험으로는 보장받지 못하는 모든 치료비 의료 실비를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민영의료보험이 나와 있다. 요즘은 하나의 보험으로 민영의료보험의 보장 뿐 아니라 운전자 보험의 보장도 함께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상황에 따른 새로운 보험 상품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가입은 피하고 보험 상품의 내용을 꼼꼼히 파악하여 나에게 맞는 상품이 무엇인가를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적절한 보험 상품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보험 가입에 대한 신뢰와 미래에 대한 안정감을 동시에 가짐으로 인해 행복한 보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미정 코인스 포천영양소 소장 010-3023-0065

새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사망일에 임박해서는 가급적 재산 처분 않는 것이 좋다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 소유 재산은 처분하게 되면 세법상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1) 일정금액 이상에 대하여는 처분재산의 용도를 밝혀야 하며, 용도를 밝히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처분액이 2억 원 이상이거나 2억 원 이하의 처분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처분금액의 사용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에서 처분재산가액의 20% 상당액과 2억원 중 작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 그러므로 부득이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사망자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2)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난다. 상속이 개시되고 난 후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보유기간이 짧아 양도소득세가 없거나 적게 나오지만, 상속개시 전에 양도하면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이 길므로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온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10년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상속개시 전에 팔게 되면 10년 동안 보유한 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만 내면 되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 다만, 상속개시 후에 팔더라도 사망 후 6개월은 지나서 파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상속개시 당시 벌어들인 시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중시기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 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면 실제 매매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기 때문에 통상 기중시가는 매매가액보다 20~30% 낮으므로 6개월 전후에 팔면 상속세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이다. 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세원관리과 870-4484~4487/4502~4507

산업안전사고 예방

크레인으로 자재 운반 중 낙하하여 근로자 강타

▶재해발생개요 2007년 3월 23일 OO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설비공사 협력업체 소속 작업반장인 피재자가 설비작업용 시스템 채널을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Dry Area 개구부로 내리던 중 흔들리며 하강중이던 채널 다발의 아래쪽 부분이 Dry Area 옹벽에 부딪히며 낙하하여 재해자를 강타,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원인 가. 중량물 취급 시 안전작업계획 수립 및 준수 미실시 중량물인 시스템 채널을 양중 및 운반 시 채널 낙하위험 방지를 위해 안전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특히 채널을 경사지게 운반할 경우 미끄러짐에 의한 낙하위험 방지를 위해 보조용구(밀받침 포대 및 상자) 사용방법 등이 포함된 안전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작업 중 이를 준수하여야 하나 미실시. 나. 낙하 등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미실시 양중작업 시 채널이 낙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출입금지구역설정으로 낙하위험 구역내 출입을 금지시키고, 낙하물 발생 시 대피가 용이하도록 작업장 바닥을 정리정돈.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28-6091)



가. 중량물 취급 시 안전작업 계획 수립 및 준수 철저 시스템 채널을 양중 및 운반할 경우 채널 낙하위험 방지를 위해 수평 유지 및 부재결속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을 사전 작성하고, 특히 경사진 상태로 운반 시에는 채널의 미끄러짐에 의한 낙하방지를 위해 보조용구 사용방법 등이 포함된 안전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작업 중 준수 철저. 나. 낙하 등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실시 채널 양중작업 시 낙하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출입 금지지역을 설정하여 낙하위험 구역내 근로자 출입을 금지시키고, 낙하물 발생 시 대피가 용이하도록 작업장 바닥을 정리정돈.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28-6091)

탐방 우리지역 사업소 148 현대자동차 승우지점

지속적인 고객관리로 꾸준한 매출 신장

지점장 김 태 영

현대자동차는 신뢰경영, 현장경영, 투명경영을 경영방침으로 품질과 브랜드인지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인류의 자동차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또한 세계 자동차 업계가 주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미래와 발전을 위해 경제적 책임, 환경적 책임, 사회적 책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 소홀음사무소 앞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승우지점(포천시 소홀읍 승우리 493 늘찬빌딩. 지점장 김태영)은 5인타 7출력, 50클럽 가입, 부자되기,

비스를 집중적으로 가동시키면서 지역 곳곳에서 고객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12월부터 관내에 위치한 그린자동차 학원과 제휴해 오너정비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오너정비교실은 수강생을 대상으로 간편한 자동차 점검과 자동차에 관한 일반상식 등의 교육을 통해 양질의 운전자를 배출할 것으로 기대되며 양질의 교육을 통해 수강생들의 반응이 좋을 경우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 승우지점 전직원은 매달 판매기금을 마련 올 1월부터 사랑의 열매에 동참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관내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결식아동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우수고객을 추천해 본사에서 발행되고 있는 월간 현대모터지를 매달 제공하고 있다. 그 밖에도 신차가 출하되면 소정의 선물제공과 무료료 시승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해주고 있으며 무료콜포라운딩과 유지컬, 연극 등을 관람할 수 있도록 고객에 대한 폭넓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현대자동차 승우지점은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1천여 지점 중에서 상위권에 등록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김 지점장의 내실있는 운영이 큰 뒷받침이 되고 있다.

김 지점장은 "관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 무상순회점검 서비스 확대 언제나 겸손하며 베푸는 마음 중요

긍정적 마인드(말/행동)를 별도의 경영방침으로 독특한 운영을 자랑하고 있다.

김 지점장은 직원들에게 독학하면서 달성 가능한 메시지를 통해 판매실적 향상과 일반상식과 전문적인 상식, 재테크교육 등을 통해 직원들의 관심을 유도해나가고 있다.

현재 현대자동차 경기북부지점은 전국, 회천, 봉두천, 포천, 승우지점으로 고객들이 편리하게 지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폭 넓은 배려를 하고 있다.

현재 승우지점은 영업팀 11명, 업무팀 2명, A/S 주재원 1명과 지점장을 포함해 15명이 모든 능력을 발휘하며 인정받는 지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자동차 무상점검 서

무상순회점검 서비스로 고객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금까지 승우지점은 이해해주신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항상 낮은 자세로 모든 고객들을 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점장은 직원들이 원한다면 함께 현장에 까지 참여하는 적극적인 행동과 언제나 겸손한 마음,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고객을 대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시사적인 내용이나 정보 등을 직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자동차 판매 목표달성에 최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

문의 T.031)542-2617~8, HP 010)9942-2480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현대자동차 승우지점(포천시 소홀읍 승우리 493 늘찬빌딩. 지점장 김태영)은 5인타 7출력, 50클럽 가입, 부자되기, 긍정적 마인드(말/행동)를 별도의 경영방침으로 독특한 운영을 자랑하고 있다.

국민연금 Q&A

■월 소득 상한선(360만원)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

노후 빈익빈 부익부 방지 차원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월 소득의 상한선을 360만원으로 하는 소득상한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고소득자에 대해 지나친 연금혜택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현 제도는 개인 소득과 가입기간에 의해 연금액이 결정되기에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이 적게 낸 사람보다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더구나 세대간 소득 재분배 기능으로 고소득자는 후세대로부터 더 많은 소득이전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360만원까지 보험료를 내게 되고 그 후 매월 받게 되는 연금액이 현행 제도에서는 75만원이지만, 상한소득제를 없앤다면 771만원을 받게 된다. 이는 최소보장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보험성격에 맞지 않는다. 또 국민연금 수급률이 타 금융상품보다 높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게 더욱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건강보험처럼 많이 낸 사람과 적게 낸 사람이 똑같은 혜택을 받는 '차등부과 동등급여' 방식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현행 상한소득월액(월 360만원)은 95년에 조정된 것으로 근로자의 소득변화 등을 고려해 현실에 맞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이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비정규직 등 저소득층의 경우는 해당 급여명세서 등 입증자료를 통해 자신의 소득수준에 맞게 연금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소득상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재산이 수천억원대인 재벌회장의 월 소득도 360만원으로 간주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 대안책으로 '소득에 맞게 연금보험료를 내게 하되 훗날 연금수령액만 상한선을 두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관리공단 포천지사 031-544-8700